

다산과 사제간의 신의 “다신계”, 다산박물관 품으로

미국에서 귀환한 다신계첩 소장 오는 11월 특별전에서 공개

“이제 스승께서 북쪽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만약 마침내 아득하게 서로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강구하는 도리가 참으로 경박하게 되지 않겠는가.”

다산 정약용(1762~1836)이 1818년 여름, 유배를 마치고 고향 남양주로 돌아갈 때 강진 제자들과 함께 맺은 다신계의 내용이다.

“다신계茶信契”는 다산초당에서 함께 학문을 닦고 연구한 제자들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맺은 계라는 의미로 강진을 떠나는 다산을 지속해서 보필하려는 제자들의 다짐과, 다산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당부가 담겨있다.

그동안 다산박물관에서는 다신계첩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소장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긴 설득 끝에, 올해 3월 본격적인 유물 매도협약이 이뤄졌고 지난 6월 9일 최

종적으로 다산박물관의 소유가 확정됐다.

특히 이번 유물 구입은 해외에 있던 문화유산을 국내로 다시 들여왔다는 점에서도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번에 구입한 다신계는 매도자인 윤영돈씨의 6대 선조부터 전해오던 것으로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원본이다. 윤영돈씨는 1976년 미국 이민길에 오르면서도 조부(송령 윤재은)의 당부를 잊지 않고 챙겨가 고이 보관해 왔었다. 그는 “연구·보존을 위해 다산박물관에 매도하고 나니 큰 숙제를 끝낸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다산박물관에서는 강진제자들과 다산선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는 판단에 전라남도문화유산지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폭넓은 활용을 위해 복제를 실시할 계획도 전했다.

김선재 다산박물관장은 “중요 유물의 수집과 연구



이번에 박물관에서 매입한 다신계첩 사진이다. “다신계첩”은 서문적인 점의, 계열명단인 좌목, 계답목록, 약조, 읍내계원목, 특인읍성제생좌목, 다신별문으로 구성된다.

를 충실한 한 쾌거라며, 전시와 활용 방법을 다각도로 구상하여 올해 11월 특별전에서 첫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손경설 기자

광양금호도서관,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상호 교감 주제 창의적 독서 강좌 ‘라이브러리&예술’ 운영

광양금호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상호 교감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연계형 예술·문화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예술’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호도서관의 특화 분야인 ‘예술’과 접목해 독서, 미술, 음악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7월:(명화)에서(동물)까지, 책과 나의 거리 좁히기

7월에는 총 2개 강좌가 마련된다. 먼저 7월 14일(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민경 작가와의 만남: 사람이 사는 미술관’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세계 명화를 감상하고,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그 속에 담긴 인공 감수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다. 명화와 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가까이 들여다보고, 본인이라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학년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EBS 다큐멘터리 ‘책맹인류’를 모티브로 기획됐으며, 강아지와의 교감을 통해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감성적인 독서 경험을

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8월: 여름독서교실과 감상 음악교실

8월에는 그림책과 함께하는 독서 교실과 음악을 통한 감상 수업이 마련돼 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속 보물찾기’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후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어 8월 12일부터는 유아(6~7세)를 위한 ‘작은별 음악교실’이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협동심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7/7~10/31일 ‘2025 영암군 올해의 책 독후감 및 독후화 전국 공모전’ 참여 작품을 접수한다.

제1회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영암군 독서문화를 알리고, 책을 매개로 전국 독서가들과 교류하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

영암군의 각 분야 올해의 책은 어린이(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청소년(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다니), 일반(아버지의 해방일지) (마흔에 읽는 소편하우어)이다.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은 독후화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독후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초등학생은 어린이 분야, 중고등학

영암군, 제1회 올해의 책 독후감 및 독후화 전국 공모전

초등~성인 참여 작품 7/7~10/31일 접수... 총 24개 작품 선정 시상

생은 청소년 분야, 대학생 이상은 일반 분야 도서 1권을 선택해 작품을 내야 한다.

공모전 접수는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독후화, 독후감 초등·중고등·일반 4분야로 나눠 총 24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1명에 20만원, 우수상 2명에 10만원, 장려상 3명에 5만원을 상금으로 준다.

우수작은 영암군홈페이지에서 10일간

공개 검증을 거쳐 공정성·적합성을 확보한 다음, 최종 확정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11/24일 확정해 영암군홈페이지에 올리고,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보하는데, 수상자는 12/1일에 개최되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노재영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올해의 책으로 영암을 전국에 알리고, 책을 사랑하는 국민이 영암을 찾는 계기를 만들겠다. 전국 많은 독서인들의 공모전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연극 <문턱> 공연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7월 10일(목)~11일(금)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연극 ‘문턱’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현대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와 선택의 순간을 심리적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문턱’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무대 중심에 두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몰입을 선사한다.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내면 갈등을 강렬한 독백과 무대전환 등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심리적 분위기를 통하여 노년의 삶과 희노애락,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야기하며 웃음과 따뜻한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누리집(www.yeonggwang.go.kr) 영광문화예술의전당 페이지와 네이버밴드(http://band.us/#!/band/5015660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

하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7월 4일(금) 오후 8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길거리 문화 행사로 군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총 6개 팀이 출연해 청춘신작로의 여름밤을 뜨겁게 수놓을 예정이다. ▲생동감 넘치는 록밴드 ‘SIRO’ ▲감성의 색소폰 연주 ‘푸른 꿈 색소폰 앙상블’ ▲관객과 소통하는 보컬 ‘소리’ ▲화려

한여름 밤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 함께 즐겨요

4일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 밴드 공연부터 스트리트댄스까지

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엠브리오’ ▲감미로운 멜로디를 들려줄 밴드 ‘유클’ ▲라카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드망시’ 등의 저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청춘신작로 버스킹은 오는 10월까지 열린다. 공연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새롭게 꾸며지는 공연은 도심 속 문화 공간의 새로운 매력

을 전하고 있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끼 많고 열정 있는 청년들이 청춘신작로 버스킹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순/김중환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